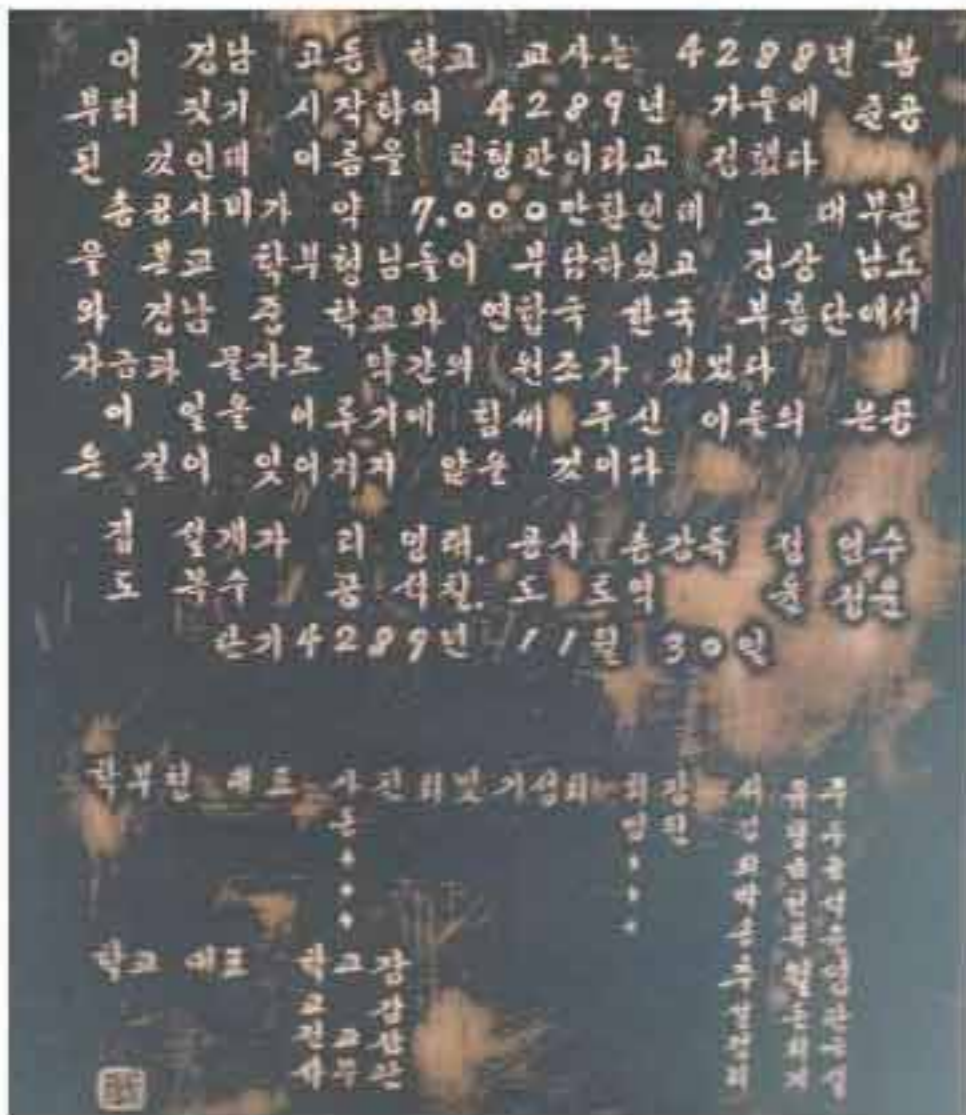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석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서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박동열
발행처: 경남중고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주)동방인쇄 (051)636-9477
재경동창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빌딩 504호
Tel: (02)783-0071 ~ 2, FAX: (02)783-0073



'원형교사'로 불려지고 있는 경남고 덕형관의 준공(1956.5.24)을 기념해 편사관계 내역을 동판으로 제작, 건물 4층 천장에 부착한 동판 사진본. 실제 동판은 밑에서 쳐다보면 너무 높기 부러져 있어 육안으로는 내역을 식별할 수 없다.

개교당시 모교부지 현황표 발굴

이희문(63) 전 경남고 교장, 각종 중요자료 제공

1942년 4월 '부산제2중학교'로 창학의 문을 연 모교의 남구 문헌동 당시 학교 부지 규모 (총 1만5천248평)를 지목별로 정리한 현황표가 이희문 동문(6회·전 경남고 교장)에 의해 발굴, 모교60년사편찬위원회에 제공,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됐다.

이 동문은 이 회귀자료와 함께 모교 개교로부터 원형교사 준공까지의 연혁과 원형교사로 불려지고 있는 '덕형관 - 德馨館'의 4층에서 옥상으로 나가는 나선형 계단 옆 기둥의 천장에 동판으로 제작·부착한 공사비와 도목수 등 공사 관계자·사진회 회장·임원·학교장 등 명단 사진본도 제공했다.

학교 연혁에 따르면, 공사비 약 7천만 원이 든 원형교사는 지난 1955년 5월5일에 기공한 이래 1년 19일 만인 56년 5월24일에 준공했다 (동판 사진본은 원형교

문헌동 '부산2공립중' 지목별 평수 상세 기록 원형교사 공사비·도목수 등 내역 동판 사진본

사의 실제 동판이 너무 높은 곳에 부착돼 있어 밑에서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워 최근 접 촬영한 것임).

특히 설계사(리계설)·공사 총감독(정임수)·도목수(공석철·목수 책임자)·도토역(윤성호·미장 책임자·원형교사 꼭대기 마감 최고 솜씨 자랑) 등과 사진회 및 기성회 서유주 회장(당시 부산시의회 의장)과 김형두(당시 국제신문 사장) 등 4명의 임원, 추월영 교장·실용관 교감·정희근 전 교감·리계설 사무관(13회 이범경 동문 선전) 등 명단이 각각 새겨져 있다.

'덕형관'이란 중국 고사에서 따온 말로, 지(智)·체(體)·예(藝)·덕(德)을 쌓는 도량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자료를 제공한 이희문 동문은 모교에서만 27년 간(평교사·교감·교장) 봉직했고 교장 재임 중에는 옛 과학관을 헐고 그 자리에 5층 현대식 교사를 세우는 등 모교의 교육환경개선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

특히 본부동창회 사무국장을 15년 간 역임하면서 열악했던 조직 기반을 공고히 다졌고, 경문회장과 동기회장 등을 맡았으며, 동창회 최고의 상인 제9회 용마대상을 받았다. 또 시교육청 학무국장·경남여고 교장 등을 지냈다.

기습호우 뚫고 불퇴전의 산행

제4회 기별대항 등산대회 용마가족 159명 참가

승학산~엄광산~구봉산 악천후로 공식경기 유보 제23회 최다참가상 받아 동기회별 기념품

불퇴전의 용마산우들은 강풍속의 장대비를 뚫고 승학산~엄광산~구봉산을 누볐다.

지난 5월25일 열린 동창회장기 쟁탈 제4회 기별대항등산대회(주최 본부동창회·주관 용마산악회)는 기습호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문 135명과 가족 24명 등 모두 159명이 참가해 의욕을 과

시했으나, 기별대항전을 유보한 채 자유로운 산행으로 치렀다.

이날 오후 경남고 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제23회가 25명이나 참석해 최다참가상을 받았다. 스틱을 비롯한 650만 원 상당의 나머지 각종 상품은 동기회별로 고루 나눠졌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 승학캠퍼스 정문 앞에서 열린 발대식은 개회 선언(정준수 용마산악회 부회장·15회)에 이어 전년도 우승팀인 제22회의 우승기 반환·용마

산악회장(제병민·13회) 대회사·본부회장(박동열·8회) 격려사 및 행사지원금·특찬금 전달·산행대장(오기현·20회) 대회요강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제병민 산악회장은 대회사에서 "예기치 않은 기습호우로 동기별 기량 발휘가 불가능해졌으나 안전사고에 유념하면서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서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행은 오전 10시30분 일제히 산행에 돌입, 승학산(11:50)~구덕산 안부(12:50)~꽃동네(13:30-점심식사)를 거쳐 오후 4시 경남고 체육관에 도착, 단합회를 치르고 대미를 장식했다.

"협찬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를 위해 협찬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 △본부동창회=행사지원금 1백만 원
- △박동열(8회·본부회장)=30만 원
- △한동대(9회·용마산악회 명예회장)=금일봉
- △남기용(12회·동기회 회장)=1백만 원
- △제병민(13회·용마산악회 회장)=금일봉
- △하영수(17회·용마산악회 부회장)=10만 원
- △채경석(20회·오복식품 대표)=160만 원 어치 상품.



기습호우에도 불구하고 기별대항 등산대회에 참가한 용마가족들이 우산을 받쳐든 채 술정식(위)을 갖고 승학산-엄광산-구봉산을 오른 후 경남고 체육관에서 단합회(아래)를 열고 있다.

본부 용마산악회 정기총회 4회 등산대회 대표자회의도

본부 용마산악회는 지난 5월13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제일생명빌딩 23층 제일뷔페홀에서 2003년 정기총회 겸 올해 기별대항 등산대회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제병민 회장(13회)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박종규 총무(31회)

의 사회로 진행, 먼저 지난 3월23일 경남 통영시 근교 벽방산에서 열린 제13차 정기산행대회(동문 146명·가족 23명 참석) 등 회기내 주요사업보고를 통과시켰다.

또한 2002년 결산보고와 올해 예산안, 동창회장기 쟁탈 제4회 기별대항등산대회 (5월25일 승학산~경남고 코스)를 포함한 올해 산행계획안 등 주요의안을 승인했다.

제 14 회 동 기 회 임 원 명 단

고 문

문운용 손광웅 신길송 강주신
박병선 윤영현 류충일 박효건
이길미 정시영 노수덕 한규환
이종민

회 장

김영대

부 회장

김용호 강돌이 김이길 양정우
이광언 이승오 정현구 한창수
황원규

이 사

공철성 구자신 김건호 김영식
김영우 김우구 김재도 김화옥
김청수 김형수 김춘경 문성필
박문남 박순일 박중철 박춘재
박종문 박삼현 박용화 박헌묵
반미태 신현호 신용진 염상주
유정호 윤용남 이동식 이명재
이수남 이영준 이진우 이훈일
이효근 장삼식 정상진 정삼영
정의광 진성태 조규태 조대무
최경렬 최성웅 최충락 하광진
한상설 황준성

총 무 박청홍

감 사 김철연 조영봉

< 지역동기회 >

마산동기회 회장 허민영
울산동기회 회장 강호일
총무 전부길
거제동창회 고문 손광웅 조규태
윤용남

< 직능회 >

경조회 회장 한규환

경사회

회장 반미태
총무 노수덕
낙석회 회장 장삼식
등산회 회장 이명재
총무 이수남
보수회 회장 김의웅
총무 전재수
등대회 회장 김청수
1·4회 회장 김의웅
총무 박수관
의약회 회장 이승오
총무 양정우

일전에 달리기하는 한 동문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옆에 같이 뛰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보다 아래로 보였는지 갑자기 나이를 묻더라. "한 바퀴 돌았어요"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눈만 멀뚱해 하더라는 것이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그리고 옛날 우리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을 했었던가를 생각하노라면 정말로 머리가 돌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들 모두 어느덧 '인생갑자 한 바퀴 돌았으나', 아직 노인이라 하기에는 5년이나(?) 남은 듯하다. 예전엔 노인이라면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까닭이다.

지금쯤은 아들 딸 혼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을 때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한 할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기 시작하고 있을 때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들 관심의 대상은 나이, 숫자 자체나 단순한 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건강장수와 수준 높은 삶의 질이라 하겠다.

대개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게 마련이어서 사회적으로는 나이만으로

시평

박찬호

제15회 동기회 회장 · (주)신승원테크 대표이사



인생갑자 한 바퀴 돌고서

노인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리적 연령과 정신적 연령의 개인 차이를 무시하고 일괄해서 기능 상실자나 퇴물로 보려는 편견이 도처에 팽대하고 있지 않은가. 노인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유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잘 늙어가야 하는가.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이 끝나면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 그러나 누구나 늙어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써 늙음을 부정하거나 이에 저항하고 젊어지려고 한다. 그래서 초라해지고 추해지기 마련이다. 누구나 장수를 바라지만 건강한 상태의 장수가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는 더 설명할 나위가 없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으로부터 짐작해

보면 앞으로 15년 정도(?)의 여생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으나 갈수록 나이의 무게에 대한 고정관념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어서 젊은이들로부터 대접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고령화현상을 거꾸로 새로운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른바 요즈음 신(新)노인은 건강해야 하고 보람된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자기의 일을 찾아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생산성을 유지하고 어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삶을 영위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이 보장 될 것이다.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역할이나 가족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 재정

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부동창회나 각 동기회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아직도 폭탄주 열 잔 정도를 하는 친구들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 들고 있다.

유희회나 각종 모임에 나오는 동문들의 숫자도 줄어들 것이고, 본부나 동기회의 살림살이도 수입과 지출 등 그 규모가 적어질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하면 여전히 재미있는 그리고 활기 있는 동창회로 유지될 수 있을까? 동문들과 그 가족들 사이에 끈끈한 정을 상기하며, 동문들의 모임이라면 가슴을 설레이며 참석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정 나누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길을 찾을 수 있고 또한 동문들과 가족들 간의 정 나누기가 알차게 이루어질 방안들을 찾아내는 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때까지 이만큼 발전·유지시켜온 본부나 동기회의 역대 회장님들과 모든 동문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올해에도 우리들의 모임이 여전히 훈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촉구한다.

'03대동제' 이틀간 감동의 이벤트

제26회동기회 경부 동문 80여 명 부산에 집결
색소폰 연주 전야제 감흥... 북한음식·생선회파티

제26회동기회 '03대동제'가 부산에서 열려 감동의 이벤트를 만끽하며 회포를 풀었다.

지난 5월 17~18일 열린 제26회 대동제는 잔치를 주재한 박상호

회장과 서울의 최낙준 회장을 비롯, 김용찬 강상모 총무 등 경부 동문 8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상호 회장이 주재한 이번 한

마당은 17일 오후 7시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 기슭의 '북한음식점' (사진-박장현 동문 운영)에서 전야제를 베풀었다.

색소폰의 경쾌한 선율이 감흥을 불러일으킨 전야제는 재담이 넘쳤고 노래와 장기자랑이 절정을 이뤘다.

일행은 뒷날(18일) 시내 관광을 마친 후 정오 자갈치시장 생선횃집에서 광어 도다리 불락 등 싱싱한 회로 옛말을 되살렸다.

서울 동문들은 이날 오후 3시 열차편으로 귀경했다.

뉴욕 26회 동문들 속초횃집서 축배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제26회 동문들이 지난 5월11일 이곳 팰러사이드팍의 '속초횃집'에서 우정을 나눴다.

김부곤 이선정 서대홍 김남훈 김치갑 강녕영 동문 등 6명은 이날 어렵사리 만나 유명을 달리한 박경원 교장선생님의 명복을 빌었고, 축배를 들며 근황을 돌아가며 들려주었다.



'전통의 화요회' 존속키로

경열회 이사회, 현안 논의 끝에 확정

경열회(제10회재경동기회)는 지난 4월4일 이사회를 열고 현안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승락 회장이 주재한 이사회는 집행부 임원을 비롯, 직전 회장단·각 화요회 회장·취미모임 회장·유공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화요회 개편문제에 대해 대다수가 '전통의 화요회'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여의도화요회 최윤해 회장은 비용이 적게 들고 교통이 좋은 모임 장소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8회 홈페이지 등록 회원 100명 돌파

제28회동기회의 홈페이지 www.kn28.com.이 최근 새롭게 구축한 이래 100명이 등록(5월20일 현재)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해외 동문들까지도 속속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을 전함으로써 제28회는 '컴맹세대'라는 오명을 씻게 됐다. 접속 건수도 하루 수십 건에 이르러 그야말로 사이버동기회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제16회 대마도 수학여행

선상 낚시대회 등 즐거운 2박3일 '추억 찰라'

제16회동기회 일본 대마도수학여행단이 사흘 동안 현지에서 발길 닿는 데마다 부산의 '자존심'과 부산 사람들의 호쾌한 기질을 심었다.

지난 5월21일 오후 1시 정영일 회장의 인솔로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항에 도착한 제16회 제20차 수학여행단(사진-동문 18명·부인 7명)은 기대와 설레임 안은 채 곧바로 최익현 선생 추모비가 있는 수선사와 대마역사민속자료관 등을 순례, 2박3일 일정의 첫날을 체현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의 채영일 부부와 함양의 하주열 부부, 진주의 강진중·임승언 동문 등이 참석해 기쁨이 두배로 늘었다. 특히 하 동문은 수학여행 때마다 배운 공로가 높이 평가돼 감사패를, 그의 부인은 내조의 공이 커 화장품을 특별상으로 각각 받았다.

첫날 저녁 강종국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단합회의 하이라이트인 가라오케 노래경연은 지역별·부부 구분(?) 등 조정이 어려워 무승부로 끝났다.

둘째 날(22일) 오전 스모로 이동한 일

행은 카미자카 전망대와 미녀총, 아유모 도기자연공원 등을 관광했다(아침 일찍 등산을 한 일부는 오후에 합류).

셋째 날(23일) 여행단 전원은 상대마로 이동, 와리우라한국전망대 등을 탐방한 후 정 회장이 주선한 대형 낚시대를 타고 고기잡기대회를 열었다. 대어상은 김길정·최다상은 주낙근·감부상은 옥무웅·아가미상은 이우영 동문, 봉사상은 박숙희씨(서고명 부인)가 각각 차지했다.

일행은 선상에서 맛본 즉석 회의 별미에 흠뻑 반했다.

이번 여행은 김재승·임승언 동문이 관광지 탐방마다 설명을 맡아 역사인식을 새롭게 해주었고, 옥윤석 수학여행 노조위원장과 이우영 사무장이 모두들 실컷 먹고, 왕창 마시고, 한껏 떠들며 놀 수 있게 애썼으며 사이사이 군기(?)를 잡는 등 수고가 많았다.

돌아오는 선상에서 부인들은 "내년도 꼭꼭 데리고 다녀주세요..." 입을 모아 애원조로 신신당부했다.

등대회 봄철야유회 이기대공원서

동문·가족 60명 참석

등대회 가족동반 봄철야유회가 지난 5월11일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에서 열려 신록 가득히 우정을 펼쳤다.

김 조 회장(16회·천우교역 대표이사)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동문·가족 등 60여 명이 모여 등대인의 결속과 친목을 촉진시켰다.

노경보 동문(33회)이 사회를 맡은 제1부 기념식은 회장 인사·김병수(22회) 본부 사무국 총무부장 축사·2부 게임마당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제2부 게임마당은 가족대항 퀴즈열전 ▷동문·가족 대표 노래자랑 ▷자녀 보물찾기 ▷부부 2중창 경연 ▷가족대항 자리차지하기 등으로 이뤄졌다.

노경보·채인석(35회)·김진영(37회)·최하용(40회)·김득수(41회)·장시호 동문(43회) 등이 이날 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분야별로 진행을 맡아 수고했다.

제21회 신우회 경부연합예배

제21회동기회 신우회가 지난 5월19일 오후 7시 부산 영도구 남

항동 중앙교회에서 한인환 회장 주재로 열렸다(강사 김운성 목사).

한편 경부연합예배가 지난 4월 4~5일 경기 광주군 오포면 추자리 광림수도원에서 부산 회원 9명 등 모두 40명(부인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간 계속된 예배는 강동근 목사의 '하는 자의 책임(시편 39편 4-7)'이란 말씀에 이어 이홍석 동문의 파란만장한 신앙간증, 찬양, 성찬식 등으로 진행됐다.

"동창회 활성화 위해 적극 참여합시다"

경총회 첫 가족동반 단합회 '신바람'

60여 명 장기자랑·초대가수 공연 등 펼쳐

본부동창회의 각 동기회 총무 모임인 총무단협의회(일명 경총회)는 지난 6월1일 경남 양산시 동면 근교 아카피아농원에서 가족동반 단합회를 열었다.

박청홍 회장(14회)이 이끌어 나간 이날 행사는 집행부 구성 이후 처음 열린 뜻깊은 잔치로, 동문·가족(자녀 포함)과 김병수(22회) 본부 총무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경진 총무(27회)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서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기회의 살림꾼으로 봉사하고 있는 경총회 회원들은 소속 동기회는 물론 본부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사명감을 드높여 역할을 결집하자"고 말했다.

정기춘 간사장(24회)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단합한마당은 초대

여가수 공연·부인대항 장기자랑·축구공으로 목표물 맞추기·노래자랑 등으로 이어졌다.

제14회 새 회장 김영대



제14회동기회는 지난 5월22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무역회관 뷔페'에서 2003년 정기총회를 열고 김영대 동문(인천항도선사회 도선사·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종민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 집행부를 새로 출범시켰다.

천리길 고아원 찾아가 사랑나누기

재경8회 남해안 관광도

재경경팔회 용마가족들이 천리길도 멀다 않고 경남 남해군내의 한 고아원(자애원)을 찾아가 부모의 정이 그리운 원생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한껏 심어주었다.

지난 5월 28~29일 재경경팔회 동문·가족 42명(부부 18쌍·싱글 6명)은 경남 남해군내 고아원을 돌보고 있는 자애원을 방문, 원생들을 위문한 후 절경을 자랑하는 남해안 관광을 했다.



마산·창원지역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동문·가족들이 한데 어울려 새로 선보인 '박터뜨리기' 게임을 하고 있다.

빛속 체육대회... 종합우승 짝수기

마창회, 혼성릴레이·박터뜨리기 등 열전 도가니

쇠고기국밥·치킨 대인기

마산·창원지역동창회는 지난 5월25일 경남 마산한일전산여고(교장 송호연·13회) 체육관에서 제25회 가족사랑 체육대회를 열

었다. 이날 종합우승은 짝수기가 차지했다.

김진환 회장(20회)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김정부(13회), 강인섭(18회) 창원교육청장·김재근 직전회장·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이상 19회) 등 동문·가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장마비 같은 봄비가 다소 수그러든 오전 11시30분경 팡파르를 울렸다.

김진환 회장은 제1부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곳은 날씨가지만 오늘 하루 우리 용마가족들은 즐겁게 뛰놀자"고 말했다.

제2부 경기는 어린이 도우미를 맡은 창원대 사회체육과 여대생들이 지도한 에어로빅 같은 단체 준비체조에 이어 족구·부인이 참여한 혼성 400m릴레이·9인조 배구·박터뜨리기(새로 도입) 등으로 열전을 벌였다.

특히 박터뜨리기 게임은 폭죽소리와 함께 박이 터지자 그 속에서 알사탕·초콜릿·비스킷 등 갖가지 과자들이 쏟아져 나와 부인들과 자녀들이 탄성을 질렀다.

대미를 장식한 행운상 추첨에서는 이성훈 동문(32회)이 대상(김진환 회장 협찬의 삼성디지털 카메라)을 차지했다. 앞서 쇠고기국밥 등으로 차려진 점심 식사 때는 별미인 파파이스치킨(이상 열 동문 협찬·23회)이 눈감작할 사이 동이났다.

- 단체상
- △종합우승=짝수기팀
- △최다참가상=제33회
-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이환용(32회)
- △우수선수상=정길섭(33회)
- △감투상=강인호(49회)
- △비둘기상=이기돈(10회)부부
- △잉꼬상=김성준(45회)부부.



감흥 충천... 42년 만의 경부합동반창회

제15회 3-5반, 뉴욕 마동명 동문 일시귀국 계기

국악 공연·폭탄주에 심취

제15회동기회 3-5반 첫 경부합동반창회가 졸업 42년 만인 지난 4월15일 오후 7시 서울 인사동의 한정식집 석정에서 '영원한 반장' 마동명 동문이 뉴욕에서 날아온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날 모임에는 부산에서 손부홍 회장 포함 7명, 서울에서 허광길 회장 포함 11명, 뉴욕의 마 동문, 주정중 재경동기회장, 강부부 3-8회장, 김쌍열 동문 등 22명이 참석했다(사진).

잔치상을 둘러 앉은 동문들은 서울의

허 회장 경과보고와 환영사, 부산의 손 회장 인사, 뉴욕의 마 반장 답사, 주정중 재경동기회장과 강부부 3-8회장의 격려사 등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축배를 든 일행은 특별초청한 김민정 양의 <사랑가> 등 국악공연에 심취했고 강부부 회장이 제조한 폭탄주를 둘러가며 마시는 바람에 금세 광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이날 잔치에는 많은 동문들이 협찬을 했는데, 특히 원주의 윤취정 동문이 특별 제작한 볼펜(경남15·3-5반창회) 로고 넣음이 인기를 모았다.



제29회 산우회 금정산서 첫돌 잔치

김연래 개근상·부인들 특상

제29회 등산모임인 베이스캠프(www.29basecamp.com) 창립 1주년 기념 산행대회가 지난 5월11일 금정산에서 펼쳐졌다.

이충원 산행대장이 리드한 이날 산행은 동문·가족 29명(부인 7명·자녀 5명 포함)이 참가, 북구 덕천동 낙동고교~상계봉~남문~대륙봉~부산대 코스를 밟았다.

김정규 회장이 주재하고 박광우 총무가 사회를 맡은 상계봉 1주년 기념식(사진)에서 1년간 개근한 김연래 동문에게 부상으로 고급 스틱을, 산행 때마다 도시락과 별미 안주를 알뜰히 마련해준 부인들에게 기념품을 전달, 격려했다.

산행을 마친 일행은 이날 오후 5시 한양프라자 앞 랑데뷰(이충원 동문 운영)에서 열린 자축연에 참석한 후 헤어졌다.

고(故) 이성광(11회) 추모 논문집 발간

부산대 의대 교수 및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으로 활약하다 지난 2000년 4월17일 유명을 달리한 이성광 동문(11회·사진)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논문집이 최근 발간되었다.

후학과 후배들이 기획한 추모 논문집은 석·박사 학위논문을 비롯, 석·박사 지도논문·연구논문·사진으로 보는 교수 생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故) 이성광 동문은 육군사관학교를 뜻밖의 부상으로 중퇴한 후 부산대 약대와 의대를 차례로 졸업했고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의대 강단에서 후학을 위해 열정적으로 지도했고 대학병원에서는 흉부외과과장을 맡아 소임을 다했다.

회보 광고 협찬 안내

동문 여러분을 광고주로 모십니다.

- 크기 · 금액
- 하단 전체(8.2cm×25cm) : 400,000원
- 하단 1/2(8.2cm×12cm) : 200,000원
- 하단 1/4(8.2cm×6cm) : 100,000원

· 내 용
업체소개, 주요 취급품목, 대표자명(사진포함) 연락처, 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 문의사항
(051)245-7551~2

GOLF·콘도·헬스 회원권 매매

EDEN VALLEY·해운대 C.C VIP 회원 모집 분양 주관사 GOLF SET 도소매 중고채 고가매매·부동산회기 판매 최첨단 자동 센서음향 방수기기 설치전문 魔法의 DRIVER·IRON KATANA 한국총판

서면GOLF : 부산시 진구 부전2동 524-13(서면 공작터널입구) 전화:(051)803-0654~5, 804-1811, 805-0707 807-0707, 817-0606~8, 819-0606, 819-0707 080-201-7777, FAX:804-1810

H P:011-854-0707 대표 여성 열(17회)

http://www.smgolf.net

E-mail:seomyengolf@hanmail.net

총무GOLF : 서구 충무동1가 10번지(충무동교차로 지하철입구) 여성근(24회)

전화:(051)241-4344~5, 254-0707, FAX:241-6643

지금하십시오

지금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먹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하십시오. 미소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전에 장미는 피고 가을이 설래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삼일악우회 11명 야간산행

장군봉~고당봉~만남의 광장 11시간20분 간행군



삼일악우회 산사나이들이 금정산~백양산 종주(11시간 20분 소요) 야간산행을 성취,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제31회 등산모임인 삼일악우회는 지난 5월17~18일 금정산~백양산 종주 야간산행을 펼쳤다. 박종규 회장을 비롯, 남기태 산행대장과 최동식 부대장 등 11명이 참가한 이번 야간산행은 17일

오후 8시30분 경남 양산 다방리에서 들머리를 잡아 장군봉~고당봉~북문~동문~남문~만남의 광장까지 모두 11시간20분 동안(뒷날 18일 오전 7시경) 강행군했다.

야유회 등 활성화 논의 제30회동기회 임시총회

제30회동기회는 지난 4월24일 오후 7시 부산 수영구 민락동 '우리장희집'에서 올해 첫 임시총회를 열었다. 김병기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 야유회·가족동반 체육대회·기별야구대회 우승 등 올해 각종 행사계획안과 동기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용마가족을 비롯, 동산·관객들로 붐비고 있는 마이산 돌탑 경내.

제28회 용마가족 마이산 야유회

'마지막 총각' 즉흥 결혼식 리허설로 폭소 한마당

지난 5월11일 오후 1시30분 전북 진안군 근교 마이산 기슭, 산록 짙은 산골짜기에 제28회 동기회 용마가족들이 연출한 사상 초유의 웨딩마치가 울려 퍼졌다. 이는 오는 5월24일 결혼식을 올리게 된 동기회 '마지막 총각'인 정현수 예비신랑과 황경숙 예비신부를 위한 웨딩 리허설에서의 축하였다. 이원철 동기회장이 기획하고 김명영 산우회장이 연출을 맡은 드라마 <마이산 결혼식>은 동문·가족 60여 명(부인 21명·자녀 5명 포함)이 출연, '대박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날 주례를 맡은 서정환 동문

(이들 커플의 진짜 결혼식에서 진짜 주례 맡음)은 주례사를 통해 "우리 동기회는 '마지막 노총각' 정현수 군이 13일 후 장가를 가면 '않던 이가 빠지는' 격이 된다"며 두툼한 축의금 봉투를 빠짐없이 접수시켜 달라"고 말해 식장을 또 한바탕 웃겼다. 이원철 회장은 앞서 평소 내조의 공이 큰 부인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선사하며 격려한 후 "오늘 정현수 군과 황경숙 양의 결혼 리허설은 감동 그 자체였다"며 "5월24일 진짜 결혼식에는 진짜 많이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치운 총무는 광고를 통

해 이팔산우회 주관 지리산 등정이 오는 6월 14~15일 1박2일 일정으로 치러진다고 알렸다.

대운산에 13명 등정 삼공산악회 131차 산행

삼공산악회 제131차 산행대회가 지난 5월4일 경남 양산 근교 대운산(742m)에서 열렸다. 이날 산행은 맨 앞에 문장호 회장이 섰고 맨끝은 정용하 산행대장이 맡았으며 그 사이에 박진수 동문 등 11명이 탈없이 발품을 팔았다. 일행은 서창쪽에서 정상으로 바로 치고 올라가 박치골~아기소~남창코스로 내려왔다. 기차를 타고 해운대역까지 와서 우거지해장국 등으로 해단식을 가졌다.

경남중 야구부 전국소년체전 우승

부산대표로 출전 4전 전승 기록 세워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중부 야구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남중 선수들과 노재완 감독(오른쪽).

지난 6월3일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폐막된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 남중부 결승전에서 부산대표로 출전한 경남중(교장

강무기·감독 노재완)은 인창중(경기 구리시)을 7-6으로 힘겹게 누르고 우승했다. 경남중은 이로써 전국소년체육

대회에서 29년 만에 정상을 되찾았던 지난 2001년 영광에 이어 2년 만에 쾌거를 올렸다.

경남중은 이날 5회까지 5-2로 앞서다 6회 대거 4점을 내주고 5-6으로 역전당했다. 그러나 6회 말 2점을 뽑아 역전, 7-6의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지옥과 천당을 들락거린 셈이다.

결승전은 작전의 승리였다. 노감독은 인창중 타자들이 힘이 좋고 오른손 투수에 강해 준결승까지 팀을 이끈 에이스 이상화(3년) 대신 '잠수함' 투수인 2년생 권순호를 선발 등판시켜 인창중 타선을 잠재했다.

이번 대회에서 2승을 올렸고 결승에서 2타점을 올리며 투타에서 맹활약을 펼친 이상화는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특별기고

김경희

재경동창회 고문·용마공영(주) 사장·9회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지난해 11월호에 매우 흥미있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피아니스트와 독일군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유대계 폴란드인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피لمان(Wladislaw Szpilman, 1911~2000.7.6)과 독일군 대위 빌름 호젠펠트, 두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만났습니다. 유대인 대학살에서 스피لمان이 살아남도록 도와준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은인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피아니스트의 실화를 역시 게토(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생활하고 가스실에서 어머니를 잃은 유대계 폴란드인 감독 로만 폴란스키(Roman Polanski)가 영화화한 '피아니스트'의 주인공 얘기였습니다.

저는 지난 1월11일(토) 종영 직전 중앙극장에서 '피아니스트'를 매우 인상깊게 관람했습니다.

전쟁의 잔혹성, 인간이 그토록 잔인해질 수 있다는 속성을 확인하고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피لمان 자서전에 나온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객관적이며 사실적입니다.

극영화가 아닌 기록영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일제(日帝)시대와 6·25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자란 한국인들에게는 이 영

후반부는 가족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고 난 이후 홀로 남은 스피لمان의 생존 과정과 게토를 탈출한 후 옛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바르샤바에 숨어 지내는 과정입니다(시간상 1942년8월~바르샤바가 해방되던 1945년 1월까지).

'피아니스트'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바르샤바의 폐허를 전전하던 스피لمان은 참혹하게 여윈 채 제대로 몸을 씻지도 못하고 면도도 하지 못한 꼴이었습니다. 그는 니에포들레글로스치 거리 223번가 어느 부서진 저택의 부엌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주인이 미처 들고 가지 못한 가방을 열었고 자루의 끈을 풀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독일어로 "당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소?" "당신은 독일 바르샤바 방위군 참모부가 이곳으로 이동한다는 사실도 모른단 말이지?" 스피لمان은 굶주려 쇠약하여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 독일군 장교가 전직 교사였던 빌름 호젠펠트 대위였습니다. 옆방에 있는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한 곡 연주해 보시오" "당신은 유대인이지요?" 스피لمان은 지상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 쇼팽(Frederic Chopin 1810~1849)의 아상

'피아니스트'

화의 줄거리가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신선한 감동을 받은 이유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내용 전개, 일차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인물 묘사와 전쟁으로 황폐된 도시의 묘한 아름다움을 포착한 뛰어난 영상처리에 있었습니다. 특히 폐허가 된 거리를 혼자 걸어가는 스피لمان의 뒷모습이 나오는 장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2차 대전 직전 바르샤바 인구 131만 명 중 유대인은 35만 명 정도였는데 1945년 1월 바르샤바가 해방되었을 때 살아남은 유대인은 20명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는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죽음의 수용소에 대한 긴장된 이야기의 영화도 아니고 '원들러 리스트'처럼 휴머니즘과 관련된 드라마틱한 스토리의 영화도 아닙니다. 끝까지 유대계 폴란드인 스피لمان의 삶을 따라만 갑니다. 마치 어떤 감성적인 메시지를 거부하고 침묵과 절제 속에서 인간·예술·인간애와 같은 근원적인 것을 찾으려고 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두 부분으로 전개됩니다. 전반부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독일군이 진주해 오면서 스피لمان 가족이 게토로 옮겨지는 과정과 그곳에서의 생활입니다(시간상 1939년 9월~1942년 8월경).

곡 C샤프 단조(Nocturn in Sharp C Minor)를 연주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독일군 장교는 그로부터 한 달 동안 몇 차례 찾아와서 빵과 코트를 주고 갔습니다. 그는 전쟁은 곧 끝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1944년 12월12일 마지막으로 찾아와 빵과 깃털이불을 주었습니다. 곧 소련군이 이곳에 도착할 것을 알려줍니다. 이 장교는 1945년 1월17일 소련군에게 잡혀 포로가 되었다가 1952년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참고 : 지난 3월23일 제75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피아니스트' 남주연인공 스피لمان역을 맡았던 아드리엔 브로디가 남주연상을, 폴란스키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음. 스피لمان과 호젠펠트 두 가문의 후손들은 지금도 서로 오가며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함.)

역사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해준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전통과 관습을 버리는 자에게는 행운의 여신이 찾아오지 않는다. 조상을 모르는 자는 가통(家統)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번영을 누릴 수 없다'는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경구를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과 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identity)을 지킵시다.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용건회 창립 12돌 금정산 기념등반

용건회(건축 등 건설관련 동문 친목회)는 지난 4월12일 오후 부산의 진산(鎭山) 금정산에서 창립 12주년 기념 가족동반 봄철등반대회를 열고 친교의 터전을 다졌다. 장상진 회장(16회·장상진

건축설계사 사무소 대표)을 비롯, 동문·가족 30여 명은 이날 오후 이영학 총무(26회)의 리드로 산성마을행 버스편으로 동문 들머리에서 내려 남문까지 산행을 했고, 하산해 온천장 돼지갈비집에서 단합회를 열었다.

눈발 속에 진달래 꽃망을 숨쉬고

삼공산악회 한라산 등정기 정용하

삼공산악회 제125차 산행은 남한에서 가장 높다는 한라산에서 이뤄졌다.

박진수 동문의 '한라산 도전' 발의에 따라 지난 4월4일 오후 8시 제주행 코니아일랜드호를 타고 부산항을 빠져나간다. 우리 일행 6명(회장 문장호 박진수 장상현 김우삼 이원룡 정용하)은 메아리산악회(대장 박영태) 회원 3명과 동행.

배 안(3등실)은 좀 비좁다. 술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데 옆방에선 아줌마부대가 밤 12시가 넘도록 춤과 노래로 난장판(?)을 친다. 잠을 설치다.

5일 오전 6시30분 일출 속의 제주항. 일행은 갈치조림의 아침식사에 만족한다.

이날 오전 8시35분. 일행은 516도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성관악휴게소(해발 750m)에서 산행을 시작한다. 이 코스는 성관악~속밭(3.5km)~사라악(2.1km)~진달래밭(1.7km)~정상(2.3km)~성관악의 총 9.6km로 8시간25분이 소요된다.

휴게소 매표소~울창한 수림~자갈밭 등을 지나 1시간 후에 사라대피소에 도착한다. 좀 가파른 길은 눈과 빙판에 묻혀 있다. 이후 경사가 조금 가팔라지면서 눈과 빙판길. 10시50분 진달래대피소에 닿는다. 진달래는 꽃망을 만 달려 있다.

대피소 앞마당 넓은 송관마루에서 평생 기억에 남을 30분의 맛있는 낮잠을 즐긴 뒤 급경사

"노병은 아직도 건재..."

제5회 새 회장 박장후선임

제5회동기회는 지난 4월25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천우빌딩 4층 경양식집 '아프리카'에서 2003년 정기총회를 열고 박장후 동문(박장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진우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김수현 총무의 사회로 진행,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고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를 강행군. 55분 만에 동쪽 백록담 정상에 오른다. 백록담의 화구호는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

잔설에 덮힌 정상에 서니 초강풍이라 옷을 모두 꺼내 입는다. 알개 보이는 백록담의 옆 경사면은 망원경으로 보니 빙하와

박장후 신입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기회의 활성화와 제5회가 원로 기(期)로서 동창회 발전에 기여하고 모범을 보이게끔 애쓴 정진우 회장을 비롯한 직전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전임자의 뜻을 받들어 '힘이 아직도 넘치는 동기회' '건재하는 노병'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행은 소웃잔을 나누다가 끼를 못 참은 나머지 노래자랑 등을 벌였다.

같은 맛있는 풍경을 보여준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오후 1시 20분 하산한다. 눈이 꽤 많이 쌓인 자갈길을 헤치고 오후 5시 산행을 마친다.

제주의 일몰을 보면서 밤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향한다.

미국 남가주동창회 회지 '용마2002...' 발간 국내외 동문 글 다수 게재

미국 남가주동창회는 회지 '2002용마 Southern California'를 최근 발간했다. A4크기 40쪽으로 기획·편집한 이 회지의 표지는 신록에 싸인 모교의 원형교사 '덕형관'을 배경으로 집행부 임원들(사진-왼쪽부터 김의철 총무·황선호 부회장·방성연 재무·차한열 회장·이충권 골프회장·이서희 부회장·정영치 부회장)이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 회지에는 '남가주 용마지 발간 축하' 제목의 권오현(1회) 본부동창회 고문의 권두언을 비롯, '열정적인 삶'-유복태(15회 CPA, 동창회 이사장)·'잘한 것 한 가지'-차한열(22회·회장·



ACE Hardware 대표)·'존경하는 경남중고 동문 여러분'-김의철(27회·총무·영화감독)·'행복한 성공'-토마스 김(14회·보험대리인)·'권영길과 김영삼'-명철공(17회·내과전문의)의 글이 실려 있다.

또 '용마의 변신'-김옥석(20회·산부인과 전문의)·'월드컵과 국민통합'-허범도(22회·중소기업청장)·'평상심'-정영치(23회·동아자동차 대표)·'사장노릇'-이승훈(27회·자연나라 대표)·'비단길에서'-이원익(27회·태사모 회장·*태사모는 태고사를 사랑하는 모임 약칭)·'불쌍한 개팔자'-최대영 동문(27회·수산아메리카 대표) 등 삶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했다.

그리고 모교를 방문했던 차한열 회장이 '산천은 의구하다지만 제목으로 엮은 포토에세이·'한국에서 살기 싫은 이유'-김의철·'정을 아껴야 산다'-이민휘(32회·이민휘학원 원장)·'당신의 신원은 도용되고 있다'-방성연(34회)·'재미있는 세금 이야기'-강호석 동문(35회·CPA) 등의 글도 실렸다.

석달 참다가 대운산 누버 일오산우회 206차 산행

일오산우회(제15회동기회)는 지난 5월18일 경남 서창 근교 대운산에서 제206차 산행대회를 열었다. 이번 산행은 장마 같은 봄비로 3~4월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석 달만에 치러져서 반가움과 설렘이 유별났다.

동문·가족 19명(남자 15명·여자 4명)은 이날 이동근 산행대장의 말을 잘 따른 덕분에 쾌조의 산행을 즐겼다. 특히 노포동에서 출발한 시외버스 안에서 제30회 후배들을 만나 같이 가게 돼 끈끈한 동창애를 만끽했다. 일행은 박찬호 동기회장

과 이동근 산행대장의 금일봉으로 해단식(원조곰탕집)을 치르고 헤어졌다.

이칠마라톤회 건각 7명 10km 미니코스대회 완주 광안대교 앞 횃촌서 해단식

이칠마라톤회 건각 7명(회장 박상훈·백민호·이형복 부부·태기섭·강봉호 대리주자 배병호·최경룡)은 지난 5월11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2003부산 하프마라톤대회' 미니코스(10km)에 참가, 전원 완주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날 연도에는 수많은 동문·가족들과 마라톤 기술고문 한경애씨를 비롯한 동백

회 회원들의 열띤 응원이 '아름다운 불거리'를 연출했다.

선수들과 응원단 등은 대회가 끝난 후 박상훈 회장이 손수 운전한 새 차를 타고 광안리에 와서 해수사우나로 피로를 풀었다. 일행은 낮에 교회에 가느라 출전하지 못했던 조봉관 부부가 예약해 놓은 광안대교 전경이 보여 전망 최고인 신라횃집에서 해단식을 즐겼다.

삼공댄스스포츠회 출범 건강·여가선용 일석이조

제30회동기회는 동문 간·부부 간 건강과 우애를 다지기 위한 삼공댄스스포츠

호회를 결성,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왕순모 동문이 이끄는 삼공댄스스포츠회는 댄스스포츠계 대가인 미모의 30대 강사의 지도를 받고 있는데, 왕 동문을 비롯해 김병섭 문장호 정용하 박동욱 박웅석 동문 등이 가입되어 있다.

△장소 : 용호복지회관(용호동 이기대 입구)

△수강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9시 30분(자율학습 목요일 오후 8시30분~9시 30분)

△회비 : 월 2만 원

△연락처 : 왕순모(016-9280-1179)·박웅석(016-832-2929).

삼삼회 '낙동정맥종주' 출정

제1구간 대티고개~구평고개 5시간40분 돌파

제33회동기회 산사나이들이 낙동정맥 등정길에 올랐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련과의 싸움'을 자청한 이들은 백두대간종주에 대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사진).

지난 4월27일 오전 9시30분 지하철 1호선 대티역 앞. 강주태 회장 등 15명은 삼삼회 제43차 정기산행 겸 낙동정맥 1구간인 '대티고개~구평고개' 도전을 위해 결의를 재확인했

다.

'낙동정맥종주' 깃발과 '제33회동기회' 깃발을 앞세운 이들은 우리나라 산하의 아름다움과 능선을 타면서 주변 경치 등에 거듭 감탄을 자아냈다. 당초 낙동정맥종주 제1구간은 '대티고개~구평고개~물운대'로 정했으나 길이 너무 멀어 이 코스를 2개 구간으로 끊었다. 따라서 제2구간은 '구평고개~물운대'로 수정했다.

낙동정맥을 종주한다는 기쁨



에 묻힌 이들은 이날 대티역(09:30)~대티고개(09:40)~가치고개(10:10)~우정탑(10:40-247m)~괴정고개(11:10)~장림고개(12:40-점심식사 30분 소

요)~봉화산(13:50-150m)~구평고개(14:50)~하산 종료(15:10) 코스를 총 5시간40분 걸려 마쳤다.

제 15회동기회 임원명단

본부부회장 손부흥 오봉석

회 장 박찬호

자문위원 강재모 구형우 김삼용 김중광 김학현 손부흥 손재형 신희규 안충웅 이은수 이종명 전동석 정기문 정수방

정준수 정창환 조영일 최 욱 한해수

부 회 장 강부남 권승부 김경일 김염훈 김중광 유경수 이정부 임병철 최광웅 허두영

본부 이사 김뇌명 박찬호 신철호 이재원 이추남 조일랑

감 사 강무상 김정환

동기회관 운영위원장 한해수

동기회관 운영위원 강무상 김명배 김승일 김양정 김창구 김학현 김황영 손부흥 이승남 장수웅 장종호 정수방 정창환

동기회관 운영실장 조일랑

총 무 최병우 조일랑



제8회동기회

절벽·절경 아우러진 재경산우회, 12명 거뜬히 등정

재경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는 지난 4월19일 소요산에서 등산을 즐겼다. 산꾼 12명은 철책 난간과 로프에 의존하지 않고는 한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버랑길과 감탄사가 절로 터져나오는 절경이 아우러진 자재암~하백운대~중백운대~상백운대 코스 등정에 성공했다.

소요산 역장(이희순 동문의 친동생)이 배운 삼겹살 환송파티와 "단풍철에 또 오십시오..."라는 인사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

한편 산우회는 앞서 같은 달 31일 도봉산, 24일 관악산, 17일 수락산을 각각 올랐다.

팔선회 4·5월 바둑대회 이종주·배주원 우승

팔선회(재경 바둑모임·회장 이유환)는 지난 5월3일 한일기원(옛 일풍기원)에서 정례회를 열었다. 이날 우승은 배주원·준우승은 최대영 동문이 차지했다. 한편 지난 4월19일 열린 대회에서 우승은 이종주·준우승은 이창근 동문이 차지했다.

잔디회 골프대회 이틀간 오크밸리CC에서

잔디회(재경 골프모임·회장 배주원)는 지난 5월 20~21일 이틀간 오크밸리CC에서 제120~121회 월례회 겸 2002년 연말 결승전을 개최했다.

제10회동기회

경열회 각 친목회 협기왕성 골프 우승 4월 진강, 5월 한양구

경열회(재경) 6월 수업시간표에 따르면, 안산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0일 정오 안산 중앙역 다릿목추어탕집에서, 강북회(회장 이효술)는 3일 정오 중앙극장 앞 평래옥에서 각각 화요모임을 열었다.

등산모임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지난 7일 도봉산에 올랐으며 오는 17일에는 관악산을 등정할 예정이고, 바둑모임 동수회(회장 김영복)는 오는 14일 양재동 강남바둑에서 수담을, 여의도회(회장 최운해)는 17일 정오 광산반점에서 청오리를 즐긴다. 테니스모임 정우회(회장 박철민)는 18일 오전 10시 과천종합운동장 내 관문코트에서 기량을 뽐내고, 강남회(회장 성 은)는 24일 정오 서초갈비촌에서 정력을 보강시킨다.

골프모임인 경록회(회장 이정배)는 26일 정오 자유CC에서 티업한다. 지난 5월 대회에서는 우승 한양구·메달리스트 양희복·준우승 김용목·3위 장기상·롱기스트 이근태·니어리스트 김상태·

행운상 이해수·춘계대회 회장 특별상 고무용 김상태 정인호 동문 각각 수상. 특히 4월대회에서 우승한 진 강 동문이 상금대조로 금일봉을 회사, 박수를 받았다.

제12회동기회

산악회 신입회장 임태섭 매월 1차례 정기산행

산악회는 지난 5월12일 임원 개선을 통해 회장에 임태섭(동아대 교육대학원장), 총무에 우정하, 산행대장에 정현대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모임은 매월 1회 정기산행을 하기로 결정했다.

남구회 회장 김제욱 해운대회 회장 길철중

이사회는 지난 4월22일 지역회 중 남구회·연제구회·부산진구회를 하나의 지역회로 통합하는 안을 승인, 회장에 김제욱(성림의원장)·총무에 최명진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또 공식 중인 해운대회 회장에 길철중 동문을 선임했다.

제15회동기회

화친회 138차 월례회 삼팔회 어버이날 자축

신록 같은 싱그러움 정을 두루 나누는 제15회동기회 각 친목회별 5월 모임은 다음과 같다.

화친회(회장 임병철)는 13일 오후 7시 일식집 '소도'에서 13명이 모인 가운데 제138차 월례회를, 이화회(회장 강부남)는 같은 날 '옛골쌈밥집'에서 11명 전원이 모였고, 가람회(회장 이정부)는 같은 날 '죽마고우'에서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열었다.

삼팔회(회장 허두영·사진)는 9일 오후 7시 서면 '다원정'에서 17명(동문 10명·부인 7명)이 모인 가운데 제52차 월례회 겸 어버이날 자축연을 벌였다. 이날 임원 개선에서 최병우 회장 후임으로 허 회장을 선출했다.

7월 모임 창원에서 김용세 초청 1박2일

삼오회(회장 손부흥)는 6일 오후 7시 서면 '포항물횃집'에서 8명(최병우·조일랑 동기회 총무 포함)이 모인 가운데 정례회를 열었다. 회원들은 지난 4월15일 서울에서 열린 경부합동반창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고가 많았던 손 회장과 박찬호 총무에게 뜨거운 박수로 격려했다. 특히 오는 7월5일 모임은 창원의 김용세 동문 초청으로 1박2일 창원에서 열린다.



홀수기 종합우승... 3연패 위업

울산회 체육대회, 야구·축구·가족대포쏘기 등 5종목 열전

정갑윤(23회) 등 4명 MVP

울산지역동창회 용마가족체육대회가 지난 6월6일 울산상고 운동장에서 열려 홀수기가 종합우승, 3연패의 위업을 세웠다.

김성규 회장(10회)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홀수기와 짝수기가 야구·축구·족구·부인이어달리기·가족대포쏘기 등 5개 종목을 놓고 열전을 펼쳤다.

종목별 최우수선수상은 ▷야구 이순환(33회) ▷축구 정갑윤(23회) ▷족구 박 일(33회) ▷부인이어달리기 김성규 동문(10회) 부인이, 감투상은 야구에서 기량을 펼친 문백섭 동문(29회)이 각각 수상했다.

입장식에는 김 회장을 비롯, 정원준(3회)·김상식(8회)·유병철(9회)·조준탁(13회)·김형수 고문(14회)과 본부동창회 김병수(22회) 총무부장, 국회의원인 정갑윤 동문(23회)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참석한 동문·가족들은 LG 고급선물세트를 비롯, 각종 기념품을 선물로 받았다.

행사에 협찬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박동열(8회·본부회장)=금일

봉 △유병철(9회)=20만원 △한수길(14회·롯데제과 사장)=과자류 8상자 △서정욱(15회)=60만원 상당 타올 200장 △김길우(17회)=30만원 △박홍조(22회)=50만원 △정갑윤(23회)=10만원 △문백섭(29회)=50만원 △이순환(33회)=20만원 △우인호(33회)=손목시계 3개·150만 원 상당 타올 120세트.



울산지역동창회 체육대회의 '가족대포쏘기' 게임.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열전을 벌이고 있다.

새 이벤트 적극 개발키로 제15회 자문위원·회장단 회의

제15회동기회는 지난 4월29일 오후 7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문'에서 올해 첫 자문위원·회

장단 회의를 열고 조직 활성화 등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박찬호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18명이 참석, 결속을 과시했다.

칼바위 벼랑·절경 절묘한 조화

재경경팔산우회 소요산 등정기 이규환

지난 4월19일 경원선 열차 안, 재경경팔산우회 일행 12명(회장 김영철·김태용·김호석·노재복·문규환·문창화·박성재·이규환·이희순·정상현·정형수·최재혁)은 소요산 등정 기분에 들떠 있다. 서울 근교 산행을 벗어난다는 즐거움이 겹쳤기 때문.

오전 10시 무렵 소요산역에 닿자마자 역장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준다.

뜨거운 약차 대접이 어찌나 고마운지... 등산길에서 한 친구에게 사연을 물은즉, 그 역장이 바로 이희순 동문의 친동생이란다.

"오후 3시까지 돌아오셔야 합니다." 역장의 말을 뒤로 한 채 산행코스를 재촉한다. 자재암~하백운대~중백운대~상백운대로 향한다. 관리사무소를 지나니 신록의 터널이다. 바로 별천지.

오른쪽 계곡을 흐르는 물은 동두천시의 상수도원이란다. 완만한 자재암까지 오자 하백운대가 파른 고행길이 기다린다. 철책 난간과 로프에 의지하지 않고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돌산비

탈길. 숨을 몰아쉬는데, 동쪽 맞은편 산봉우리가 자욱한 운무를 헤치며 성큼 눈 앞에 다가온다.



내가 딛고 있는 두 다리가 널 판 계단 위에서 같이 떨고 있다. 그야말로 진경산수(眞景山水), 소요산의 백미(白眉)다.

하백운대에서 중백운대로 가는 길은 비교적 평탄한 능선길. 길가의 진달래는 때늦게 한창이다. 상백운대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고 하산길에 오른다. 속칭 칼바위능선을 타는데 바위는 발 아래 나지막하지만 양편 모두

깎아지른 절벽이다. 다리가 떨린다.

총 산행시간 4시간 30분. 약 6km를 이렇게 오래 매달렸던 것. 오후 3시경 역사로 돌아왔는데, 역사 옆 빈터에서 삼겹살구이파티가 벌어져 소웃잔을 돌린다. 이희순 동문이 동생에게 부탁

하여 마련한 자리란다. "단풍철에 또 오십시오." 역장이 정겨운 작별인사를 던진다.

동두천에 30여 년 살아온 역장 부부는 유달리 소요산에 애착을 갖고 3년째 소요산역을 위탁운영하고 있단다. 그간 TV에도 몇 번 소개된 적이 있다.

소요산역을 지키는 소신과 의지 변함 없길 기대하면서 역장과 가족들의 건승을 빈다.

졸업 40주년 HOME COMING DAY

동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제17회동기회

동기회 회장 정해전

총무 신정아 장정용

본부동창회 부회장 서정승

동기회부회장 김동수 김백수 김창운 손성근

윤성욱 이종덕 심문섭 정형근

당연직이사

강주수 김대성 김무부 김상천 김성오 김영전 김준연 김지창 문석웅 박창홍 서정승 송수웅 이근우 이기일 이범열 정량부 정연희 최만식 하영수 황수길 최성호 허진호

감사 정량부

직능회장단

골프회 회장 김준연 총무 배민부 기우회 회장 송유근 총무 전성광 덕형회 회장 김중대 총무 이종혁 등대회 회장 장승구 총무 박종구 장산회 회장 김영전 총무 김대희 산악회 회장 박인사 부회장 이근우 신 중 박영일 장휘행

재경동기회

회장 배재욱 총무 김동윤

제 4 회

李夢珠=동기회 총무. (자택이사)부산 서구 서대신동1가 228-31 (6/3) 101호

제 6 회

金鍾喆=4월28일 부친 별세 동아대병원. 051-853-7589
張在洙=5월4일 새마당예식장에서 딸 결혼

제 9 회

朴憲榮=(자택이사)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10 현대아파트 6단지 601동 701호
鄭商哲=(자택이사)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743 한보아파트 107동 203호
李昌俊=2월13일 모친 별세
金利燾=2월16일 장남 규표군 부산 바로니호텔에서 결혼
申相範=2월22일 별세
黃永祚=2월27일 별세
車相九=3월29일 장녀 소용양 결혼
李舜景=4월12일 모친 별세
張東根=(자택이사)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74 2층. 031-426-7245
金宗守=4월30일 별세
朴注業=5월10일 장남 진석군 결혼
金哲圭=5월24일 장남 진우군 결혼

제 10 회

알림 : 동기회 회비 송금 계좌번호 농협 484-12-019997 예금주 정종만

金容元=부산 해운대구 좌동 1323 한라아파트 103동1501호. 051-701-0010
金聖圭=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3105. 052-263-5117. 성에원 울산기독병원 이사장. 052-262-7111
金秉式=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459-40. 052-262-6005. 국제주류상사 대표
鄭鍾萬=동기회 회장. 5월21일 모친 별세
申光湜=(자택이사)경기도 용인시 성북동 726 성동마을 LG빌리지아파트 308동1406호. 031-276-4584. 011-9914-4584
沈英煥=(자택이사)경기도 김포시 고천면 신곡리 1058 한화아파트 107동406호. 031-989-1602. 019-9180-1661
金榮德=011-9079-4048
趙鍾濟=(자택이사)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311-11 상일빌라 301호
徐仁教=여호아는 하나님이다(뿌리출판사) 도서 출간. 미국 949-951-9363 팩스 949-837-3530
姜在煥=(자택이사)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롯데아파트 101동 705호. 02-2298-5475. 016-264-7233
鄭承錫=통영 육지도. 055-641-5072

제 11 회

李 明=동기회 회장. 창신해운

(주) 회장. 5월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차녀 은아양 결혼. 051-746-5260. 011-592-7040
張秉洙=(주)임창 전무이사 취임. 051-759-4173~4. (자택)051-755-0046. 017-543-8533
陳洪默=5월4일 고신의료원에서 별세.
張永千=(자택이사)부산 동래구 안락2동 현대아파트 108동 409호. 051-526-2132. 019-673-2132
朴奉欽=전 부산대학교 독문학과 교수 (자택이사)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41 삼성명가타운 106동 1504호. 055-387-3922. 011-876-3923 051-291-5072

제 12 회

金鍾源=부친 별세. 4월29일 동아대학교 동아의료원에서 장례식
鄭鎮泰=용두가원 대표. 5월17일 새마당예식장에서 장녀 결혼
崔信一=진선미 대표. 5월18일 서라벌호텔에서 장남 결혼

제 14 회

姜元守=호승비닐상사 대표. 5월18일 올림픽예식장에서 차남 결혼. 051-203-4004. (자택)051-291-1728
李明宰=부산대학교 상대 교수. 5월24일 서울 군인회관에서 차남 결혼. 051-510-2541. (자택)051-622-3292
朴春濟=춘인상사 대표. 5월25일 서라벌호텔 예식부에서 막내딸 결혼. 051-646-7030. (자택)051-256-9356
鄭時榮=법무법인 삼덕 대표 변호사. 5월31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막내 딸 결혼. 051-506-8700. (자택)051-817-6721
李孝根=(자택이사)부산 북구 금곡동 56-1 한솔아파트 102동 801호. 051-361-4967

제 15 회

金春相=5월11일 모친 별세
徐正旭=5월25일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신랑 본가에서 영애 지영양 결혼

제 16 회

金仁國=동기회사무실에 29인치 최신형 TV 제공
朴文圭=5월11일 차녀 숙경양 결혼
徐正植=5월10일 부산 위생병원에서 부친 별세
邊一秀=5월 17일 딸 수진양 결혼
崔根淑=(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1298 건영2차아파트 105동 502호. 051-742-8945
河希鎮=5월24일 장녀 승화양 결혼
姜鍾國=(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선수촌아파트 114동 1806호. 051-521-5305
金茂光=우정기업사. 부산 영도구 청학2동 1-82
鄭榮一=(주)월드라이센스 부산지사장. (사무실이전)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74 유원O/T 1305호. 051-817-0542
孫松邦=동성한의원 원장. 051-242-6010. 통영 저도에서 낚시



해운 고기 동기회사무실에 제공 회파티 가짐

제 18 회

申旻燮=(주)인풍 영업상무(옥외광고 지하철광고 대행업) 051-636-9966. 011-774-7992
趙鎭泰=부산 사하구 하단1동 부광빌라 202호. 051-291-9671
權教七=부산 금정구 구서동 일산아파트 2동 406호. 011-847-3011
金基年=미카엘귀금속 대표. 051-627-8057
金思權=부산경찰청 경무과장. 051-851-5100
金喆用=연제구청 문화공보과장. 051-665-4077
朴道亨=바이칼 대표. 051-468-5407
李大運=부산 중구 호수약국 대표. 051-621-5531
李鎭國=부산 중구 보수동2가 72-16. 051-244-9113
張壽一=(주)신성그래픽 대표. 051-865-2088
박덕봉=(주)대원그룹 부회장. 052-289-1700
崔元一=고려철강상사 대표. 051-317-1800
張壽奉=시티공인중개사. 051-624-8888
姜大圓=부산세관 남세 보사과 과장. 051-460-6350
金鍾喆=김종철회계사무소 소장. 051-853-1601

제 20 회

陳慶一=본부부회장. 옥천계곡통나무집 개업. 경남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296-2. 055-521-0035

제 21 회

曹玄榮=동기회 총무. 일식우동집 가마메 경성대점 이전화장개업. 051-627-8563. 011-579-0920
金正中=이비인후과원장. 경남 진주시 중앙동 6-1. 055-742-2666(병원) 011-552-9977
金鍾喆=5월 7일 모친 별세. 한국수출보험공사 인천지사장
金圭玉=5월21일 별세
李林德=(주)한미정공 대표이사.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766. 054-748-6476. 011-493-7692
車在天=대구시 수성수 시지동 한우로얄 3동 506호. 053-729-1792. 018-506-1459

제 24 회

金杉洙=나눔문고 개업. 경남 진주시 금산면. 055-762-3494
申張雨=한국철강 조관팀장. (자택이사)부산 북구 화명동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211동 2004호
俞今俊=유금준의원 개원. 부산 영도구 대교동. 051-412-7004
玉太仁=코리아피페·웨딩홀 개업. 부산 사상구 학장동. 051-327-4004
李炳勳=4월23일 부친 별세
李相贊=캐리어서치 개업. 인력

알선업체. 부산 동래구 안락동. 051-557-5765. 5786
全承均=5월17일 서울 청담동 엘루이호텔에서 장녀 결혼
金清錫=부산 남구 대연3동 삼익그린아파트 102동2002호
朴寶植=부산 해운대구 우1동 993-4 대우마리나아파트 201동 103호
金庚煥=소문난한방갈비탕 개업. 부산 동래구 안락2동. 051-521-0700

제 25 회

成冥出=해운대경찰서 서장
黃浩善=부경대학교 교수. 5월9일 모친 별세
徐正旭=쿨스타 대표. 5월10일 부친 별세. 051-784-5341
趙京一=조경일안과 원장. 5월19일 모친 별세
金銅鎭=문화병원 일반의과 과장. 051-630-0783. 019-373-0297
權太勇=위즈사무기 대표. (사무실이전)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40-40

제 26 회

鄭巨敦=(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선수촌아파트 118동704호
李承茂=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파견 02-3460-0240
李鍾培=신농한의원 개업. 051-337-0475
朴東祚=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전산학과 교수. 공학박사. 042-869-3438
金容贊=동한씨앤씨 대표이사. 02-779-5088
金慶鎔=(주)우일텍스 대표이사. 031-653-2220

제 27 회

姜鳳鎭=미래가스테크 개업. 부산 사하구 장림동 1118-4. 051-262-6660. 011-557-2746
金秉龍=동일고무벨트(주)전동사업부총괄 상무. 051-520-9100. 011-562-6144

제 28 회

姜賢安=변호사 개업. 종합법률사무소 정인. 051-911-6161~4
朴錫煥=상해영사관 부총영사. 86-21-6219-6417. 모친 별세
金武弘=롯데 본부 프로젝트팀 파견근무중. 018-222-1084
秋淵盛=(주)LG생명과학 상무. 팩티브 개발 주역으로 활동
金用熙=장남 재호군이 프로골퍼 자격을 취득함
金鍾寅=마닐라 거주. 아시아개발은행. E-mail:kim@adb.org
金德洙=제주대 화학과 교수. 장인 별세
朱宗穆=(주)희성정밀 전무. 055-282-9731
宋運德=(주)케이에프엔틱 울산공장 공장장. 052-256-0438
趙鎭泰=부국증권 지점장. 장인 별세
金成根=대구통신 구미사업소 소장. 011-531-1214
張勝南=베트남에서 귀국. 051-529-9658
金玲生=한솔통증의원 원장. 051-415-5000

金畏政=5월25일 모친 별세
崔石根=아프리카/시에라리온. (자택)00441716044997. E-mail: csk@kg21.net (직장)Reset Ltd (직장주소)21, Mallamah Thomas Street Freetown, Sierra Leone
李庸一=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 051-972-0028. 016-9601-3556
尹元旭=5월26일 부친 별세
宋健弘=부친 별세
朴錫煥=외교부 본부의 의전실의관. 02-2100-7097 (팩스)02-2100-7939
全統國=금촌부동산. 051-611-2701. 팩스 051-611-2702. 016-577-5447
鄭仁植=부인 박광희씨가 한국일보사에서 공모한 제21회 여성생활수기에 '동지를 떠났던 새들'로 우수작에 당선

제 29 회

宋敬文=일식전문 송림 대표. 부산 중구 중앙동1가 25-2. 051-255-5009. 011-9398-5138
金涓來=법무법인 신성 사무장.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2-1 세종빌딩 4층. 051-955-5041. FAX 051-949-5011. 011-867-6570
좌경보=5월15일 모친 별세. (주)일광상사 대표이사. 051-245-4695. 011-801-9985
文伯燮=5월25일 결혼. 울산 문치과의원 원장. 052-275-2727. 011-570-1717

제 30 회

金有燦=3월18일 미국에서 부친 별세. 분당 김유찬산부인과의원장
劉正東=유정동변호사사무실 개업. 부산정치개혁추진위원회 생활정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051-415-2211. 011-569-0450
金晶煜=5월18일 모친 별세. MBC 근무
金淳鳩=행운자동차상사 개업(중고자동차매매)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 011-587-7507
吳秀童=단란주점 크리스탈 개업. 부산 해운대구 크리스탈 호텔 3층. 016-512-1266
鄭海奭=4월16일 모친 별세. KBS에 근무. 011-9120-0479

제 33 회

李秀天=4월7일 부친 별세.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천1공장 T-50 기술관리그룹장. 018-556-6126
襄鍾玄=4월6일 장인 별세. 017-575-1317
朴辰洙=4월2일 모친 별세. 016-558-0541
徐在永=드림헬스클럽 대표. 부산 지하철 당리역 근처. 051-293-7742
李海承=3월25일 부친 별세. 017-673-1777
許 雄=3월11일 모친 별세. 011-853-7518

제 37 회

崔秉國=5월13일 부친 별세
徐龍大=5월26일 부친 별세
姜尙求=5월30일 부친 별세

훈풍에 실려온 흠커밍 추억·낭만 '꽃구름' 타고 감동의 축제 이모저모

신록 짙은 모교 교정은 훈풍에 실려온 흠커밍데이 축제로 더욱 푸르렀다. 추억과 낭만과 희망이 '꽃구름'을 타고 훨훨 날고 있었다. '봄날이 가는 줄'도 모르는 듯... 2003년의 흠커밍데이 한마당은 제17회동기회와 제27회동기회가 지난 4월26일 각각 졸업40주년·30주년을, 제37회가 지난 5월3일 졸업 20주년을 기렸다. 자주 찾

아 밟고 큰절을 올려야 했던 은사님들의 늙은 모습에서 '세월무상'을 느껴 말문이 막혔다. 모두들 '성공한 모습'으로 보여 흐뭇했고 격려들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감동으로 채색된 축제 현장을 지상중계한다.

제17회동기회 졸업 40돌 "선생님, 건강 여전하시지요?"

"자네도 점점 늙어가는구만..." "니, 아들 사장됐다며... 축하해!" "한턱 낼끼라..."

지난 4월26일 오후 7시 해운대 웨스턴조선호텔 대연회실. 육십고개에 오른 제17회동기회 졸업40주년 기념 흠커밍데이 축제 광장은 부산·서울을 비롯한 국내외 동문 226명이 빛은 우정 속에 온통 반가움과 덕담과 격려로 출렁거렸다.

정해전(부산)·배재욱 회장(서울)이 공동 주재한 이날 행사는 본부동창회 박동열 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을 비롯한 김병수 총무부장(22회), 내년 행사를 위해 특별초청된 제18회 오수명 육병규 총무 등 내빈 소개·유공자 표창·인사말·축배·여흥 등 순으로 진행됐다.

축제준비위원장을 겸한 정해전 회장은 회고사를 통해 "우리 17회 동기생들은 지난 40년 간 각계각층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고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선양에도 앞장섰음을 자부한다"며 "명예도 돈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쓸모 없으니 우리는 50주년 행사에 다 참석하기 위해 더욱 건강하게 살자"고 말했다.



반가움 속 서로 "건강 잘 지켜라" 격려 또 격려 '가버린 청춘' 아쉬워 노래·장기자랑으로 달래

이어 박동열 본부회장은 평소 동창회 발전에 남달리 헌신해 온 강주수·김용길 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후 격려사를 통해 "제17회 동문 여러분들의 '모교 사랑과 동창회 사랑'은 언제나 타의 귀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열정과 성원을 동창회 활성화에 더욱 결집시켜 달라"

고 말했다. 배재욱 재경동기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월의 골짜기와 개울을 거쳐 우리는 오늘 부산포구에 닿아서로 만났다"며 "제17회의 저력과 잠재력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동문들은 배 회장의 제의에 따라 축배를 들었고 만찬을 통해 술잔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다.

제2부 그랜드쇼는 장기 경연의 연속이었다. 동문들은 이날 잔치에서 선보이기 위해 노래방에서 담은 노래 실력을 한껏 발휘했고 장기자랑과 춤 등으로 '가버린 청춘'을 잊으려 애썼다. 축제는 교가 제창을 끝으로 밤 10시경 끝났다.

뒷날 오전 10시 동문들은 경남고(사진)와 경남중을 방문. 기념사진을 찍은 후 자갈치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12시30분부터 생선회 파티로 오찬을 나눴다. 서울팀은 오후 3시 열차편으로 떠났다.

한편 제17회는 이번 축제에 즈음해 모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기념사업금으로 경남중에 150만 원, 경남고에 25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제27회동기회 졸업 30돌 30년 만에 잡아보는 친구

들의 손들은 '혈육' 이상의 뜨거움으로 떨려 왔다. 감동의 물결 속으로 입장하시는 은사님들의 주름살과 백발은 제자들을 슬프게 하는 실루엣이었다.

제27회동기회는 지난 4월26일 오후 6시 해운대 그랜드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부산·서울을 비롯한 국내외 동문·가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30주년 기념 흠커밍데이 축제의 막을 올렸다.

제1부 기념식은 허민호 선생님을 비롯한 10여 명의 은사님들과 박동열(8회) 본부회장, 김병수(22회) 본부 총무부장 등 내빈들의 입장에 이어 개회선언·경과보고·유공자표창·위원장 회고사·은사 기념품 증정 및 대표 축사·본부회장 격려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우 동기회장은 김동조 재경회장과 공동 주재한 이날 행사에서 회고사를 통해 "우리 제27회의 지난 30년 간의 역랑결집은 동창회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자 '성공시대'를 열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명예를 드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김동조 재경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개발하여 다가오는 미래에 도전하고 화합과 결속을 통해 제27회의 위상을 한 차원 높게 확립하자"고 말했다.

손충익 은사의 답사에 이어 박동열 본부회장은 격려사에 앞서 장기남 최경용 윤원호 동문에게 공로패를, 윤정



옛 교실에 부인과 들어가 책·걸상 만지며 회상여행 서울 용마가족, 광안대로 절경·생선회에 흠뻑 반해

환 하창우 동문에게 순금기념배지를 각각 수여했다. 제2부 축하공연은 만찬이 끝난 오후 7시40분경부터 시작됐다. 30년 만에 펼쳐진 재회의 잔치는 모두를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끌어들이었다. 유명을 달리한 은사님들과 정답던 동기들의 모습을 슬라이드로 볼 때는 모두 숙연해졌다.

노래와 장기가 가슴과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이 자리저 자리에서는 번갈아가며 술잔을 권했고 물어뵈던 이야기들을 실타래처럼 풀어내며 박장대소도 빼지 않았다.

뒤풀이행사는 해운대 백사장 등에서 끼리끼리 자정이 넘도록 이어졌다.

뒷날 오전 9시30분 해운대를 출발한 일행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광안대로와 태종대유원지를 관광했다.

경남중·고교를 방문한 동문들은 각자 부인의 손을 이끌어 교실에 들어가 이제 쓰지도 않는 추억의 책·걸상을 만지작거리며 회상에 잠겼다. 특히 경남고 원형교사 앞에서의 기념촬영은 감회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오후 12시30분 자갈치시장. 끈끈한 정과 다정한 추억이 서려있는 이곳의 신동아생선회센터에서 광어·도다리 등 생선회파티(사진)는 모두를 또 한번 감동시켰다. 특히 서울의 부인들은 평소 퍼석한 회만 먹다가 즐깃즐깃하고 달착지근한 부산회를 맛보고는 정신을 못차렸다.

오후 4시 부산역 광장. 서울팀을 환송하는 서운한 마음이 모였다. 김태우·김동조 회장 등 10여 명을 잇따라 행가래쳐(부산역 개장 후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함) 오가는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동기회는 경남중과 경남고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써달라며 각각 기념사업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전달했다.

제37회동기회 졸업 20돌 "선생님, 큰절 올리겠습니다"

"다." "지난 20년 간 어디서 살았길래 그리 소식이 엷소도?" "건강은 좀 좋아졌나?" "인터넷 덕택으로 대박 맞았다며..."

제37회동기회 졸업20주년 기념 흠커밍데이행사가 지난 5월3일 오후 3시 경남고 국산기념관에서 부산과 서울을 비롯한 동문·부인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이날의 재회는 졸업 20년 만의 일이라 동문들의 반가움과 흥분과 긴장은 유별났다.

제1부 기념식은 주상우 당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20명의 은사님과 박동열(8회) 본부회장, 김향운 경남고 교장(13회), 김병수(22회) 본부 총무부장 등이 입장함에 따라 막을 올렸다. 특히 제자들은 늙지 않을 것 같던 은사님들의 모습에서 겹쳐진 주름살과 성성해진 백발을 보자 안타까움을 가눌 수 없었다.

은사님들께 사은품을 증정한 최기영 동기회장은 남무현 재경회장과 공동주재한 기념식에서 회고사를 통해 "우리는 훌륭한 선생님들의 은덕에 힘입어 각자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며 "10년 후 30돌 행사에서도 모두 더욱 성공해 만나자"고 말했다.



20년 만의 재회 '도시락 잔치상'으로 회포 풀어도 모교 교육환경개선 위해 거금 쾌척하니 마음 뿌듯

남무현 재경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립고 보고 싶던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고 보니 감개무량하다"며 "아직 우리는 사회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욱 분발해 우리의 역랑을 과시하자"고 말했다.

박동열 본부회장은 격려사에 앞서 류호섭·성창수 동문

에게 공로패를, 김상현·이춘우 동문에게 순금기념배지를 수여하고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헌신한 노력을 치하했다. 김향운 교장은 김민용 김정수 흥병일 박종민 강승중 동문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최기영 동기회장은 박동열 본부회장에게 용마장학기금 400만 원을, 김향운 교장에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기념사업금·교사연구비·재학생 기념품 등에 써달라며 800만 원을 전달했다.

동문들은 기념식에 이어 원형교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고 추억어린 교실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다.

동문들은 이날 오후 6시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2부 버라이어티쇼에 참석, '도시락 잔치상'을 받고 노래와 장기자랑을 펼쳐 숨은 솜씨를 자랑했다. 조출한 잔치상에 만족하면서 술잔을 돌리고 정담을 나누었다. 비록 자신들의 잔치상은 '도시락'으로 차려졌지만, 모교에 쾌척한 기념사업금이 재학 후배들을 위한 교육기재 구입에 쓰여진다는 기대를 하며 만족스럽게 여겼다.